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종교 지도자 담화문 연구\*

양명희(중앙대)

## 〈목차〉

- |                |                  |
|----------------|------------------|
| 1. 서론          | 3. 종교 담화문의 분석 결과 |
| 2. 담화문의 특징과 구조 | 4. 결론            |

## 1. 서론

2019년 12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코로나19의 전염성은 사람과 사람 간의 대면을 피하게 하여 회의나 회식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임을 줄어들게 하고 비대면 방식을 일반화하였으며, 이러한 비대면성은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을 변화시켰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로 코로나19의 위력은 한층 약해졌지만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의 지속으로 이상 기후, 지구 환경 오염, 핵전쟁의 위협 등 언제 닥칠지 모르는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과제번호 NRF-2019S1A6A3A01059888).

재난에 대한 관심과 두려움이 이전보다 훨씬 증가하였다.

이런 가운데 강희숙(2020)에서는 ‘재난인문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재난인문학의 관심 영역으로 재난에 대한 인간의 기억과 기록에 바탕을 둔 재난의 역사, 재난에 대한 인식, 재난에 대한 대응 및 서사화 양상, 재난에 의한 충격과 심성의 변화, 이로 인한 트라우마와 치유 등을 제시하였다. 재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재난인문학은 문학작품, 역사서, 신문기사 등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 유형을 대상으로 인간이 재난을 어떻게 기억하고 인식하고 대응하고 치유하는지 등을 분석한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과 관련한 언어학적 연구는 주로 담화 연구로, 신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sup>1)</sup> 본고에서는 신천지 사태 등으로 미사 중지, 법회 중단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종교계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하였는지 분석하고자 종교담화(宗教談話, religious discourse)<sup>2)</sup>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sup>3)</sup> 또한 종교는 속세에서 벗어나 구원과 열반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종교담화에서의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신문기사나 정부담화<sup>4)</sup>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 
- 1) 코로나19에 대한 담화 연구로 강민정(2020), 신문적·왕림·김진해(2020), 최태훈(2020), 강희숙·신유리(2021), 양명희·김현강(2021) 등이 있는데 신문 기사, 기사 제목, 신문 사설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정치 지도자의 연설문과 담화문에 대한 연구로 이해미(2020), 안희연(2021), 박서희(2021) 등이 있으나 이해미(2020)를 제외하면 모두 국외 정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 2) Kohnen(2010)에서는 담화 영역의 하나로 과학담화, 뉴스담화, 서신담화, 법정담화, 문학담화 등과 함께 종교담화의 세부 영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양의 종교담화는 역사적 특성상 기독교 담화를 뜻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성경, 기도, 종교적 교리(religious instruction), 신학적 논의(theologicla discussion)를 주요 영역으로 본다.
  - 3) 종교담화에 대한 국내의 언어학적 연구로 강현석(2012, 2013)은 개신교와 불교의 기도문을 대상으로 문형, 청자경어, 화행, 호·치칭어를 비교, 분석하였고, 정경은(2019)는 개신교와 불교의 홈페이지 인사말을 비교, 분석하였다. 강민정(2019)는 구어인 목사의 설교 담화를 대상으로 담화 구조, 담화의 특성, 담화 전략 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영역을 확장하였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본고에서는 종교담화의 주요 장르인 경전이나 설교, 기도문이 아닌 종교 지도자의 담화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직접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체 신자(때로는 국민까지 포함)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한 담화문이기 때문이다.<sup>5)</sup>

본고에서는 2020년 2, 3월에 발표된 종교 지도자들의 담화문 7편을 대상으로 각 종교 담화문의 언어적 특징과 재난인문학적 관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신자들에 대한 메시지, 정부에 대한 태도 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sup>6)</sup> 이를 위해 담화문의 특징과 구조를 2020년 2월에 발표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통해 살펴보고, 정부 담화문과의 비교를 통해 종교 담화문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이 된 담화문은 천주교 3편, 원불교 1편, 불교(조계종) 1편, 개신교 2편이다.<sup>7)</sup>

- 
- 4) 담화의 명칭은 담화가 생산되는 장소(병원, 법원, 교실, 시장, 국회..)나 행위(상담, 요리, 경매, 설교..)에 따라 이름이 붙여지곤 한다. 본문에 사용한 ‘정부담화’는 생산되는 장소를 사용하여 이름붙인 것이다. 비판적 담화분석의 주된 연구 대상인 정치담화의 ‘정치’는 ‘정치’라는 어휘를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정치담화의 범위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다(이원표, 2015:22~23).
  - 5) 본고에서 분석 대상으로 수집한 담화문 중 상당수는 해당 종교단체의 홈페이지뿐 아니라 일반 신문에도 기사화되었다.
  - 6)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신자들에 대한 메시지, 정부에 대한 태도’와 같은 분석 틀은 서론에서 언급한 강희숙(2020)의 재난인문학 연구의 주제(재난의 역사, 재난에 대한 인식, 재난에 대한 대응 및 서사화 양상, 재난에 의한 충격과 심성의 변화, 이로 인한 트라우마와 치유) 중 담화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한 것이다.
  - 7) 종교 지도자들의 담화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를 구하였다. 우리나라 종교인 조사는 통계청에서 1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20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가 967만 6천, 불교가 761만 9천, 천주교가 389만 명, 원불교 84만, 유교 75만, 천도교 65만 등이다.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150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1502)(국가통계포털) 참고.

이중 유교의 대표적인 성균관과 천도교 홈페이지 검색 결과 성균관 공지사항에서

## 2. 담화문의 특징과 구조

담화문(談話文, statement)은 국어사전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어떤 단체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글.(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앞의 정의를 보면 글쓴이는 단체나 공적인 자리에 있는, 즉 대표하는 사람이고, 어떤 문제에 대한 태도나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을 때 작성되며, 사적인 글이 아니라 공적인 글임을 알 수 있다. 담화문은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태도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글이기 때문에 문체는 격식적이고 어조는 정중하며 내용상으로는 설명과 설득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담화문은 공식적인 글이기 때문에 글의 성격에 따라 보관 내지는 보존해야 할 문서의 성격을 띠기도 한다.<sup>8)</sup> 또한 담화문은 방송이나 공적 자리에서 구어로 전달되기도 하는데 이런 특징 때문에 담화문을 연설문의 일종으로 포함하기도 한다. 연설문은 연설을 목적으로 작성한 글로서 '연설'이라는 행위로 인해 결국 그 내용이 공식적 의견이 된다는 점에서 담화문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명칭으로 의미하는 바가 다른 만큼 담화문과 연설문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통령 취임사의 경우 연설문이기도 하지만 담화문이라고 하지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수칙'(2월 20일), 천도교 공지사항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천도교중앙총부 대응 안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지도자의 담화문은 찾을 수 없었다. 반면 불교(조계종), 천주교, 원불교 홈페이지에서는 쉽게 종교 지도자의 담화문을 찾을 수 있었고, 개신교 담화문은 개신교 신문사의 포털에서 검색되었다.

8) 역대 대통령 담화문의 경우 행정안전부 대통령 기록관에 보관되어 있다. 대통령 기록관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 대통령의 담화문이 가장 많이 검색되며,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 '담화문'이라는 용어 대신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않는다.

‘담화문’ 앞에 오는 수식어는 ‘대국민, 대시민; 대통령, 회장, 김여정; 공동, 특별, 사과’ 등으로, 대상으로 하는 청자를 표현할 때는 그 앞에 ‘대(對)’를 붙여 사용하고, 담화문을 발표하는 화자를 수식어로 하거나, 담화문의 성격을 나타내는 ‘공동, 특별, 사과’ 등의 수식어를 붙이기도 한다. 수식어에서 붙 수 있듯 담화문은 주로 정부기관의 대표(대통령, 국무총리 등)가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을 때 대상으로 하는 청자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 내지는 협조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많다.<sup>9)</sup>

다음은 2020년 2월 22일 코로나19 주의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발표했던 정세균 국무총리의 담화문의 일부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 진행 상황이 더욱 엄중한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략)

특히 당부드립니다. 종교행사 등 좁은 실내 공간에 모이는 자리나 야외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거나 온라인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략)

9) 국내 정치 지도자의 담화문과 연설문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성과로는 김병홍(2014), 김재희(2018), 강민정(2019), 강세현·남인용(2021), 이해미(2020) 등이 있는데 대부분 비판적 담화 연구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이겨내야 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중략)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기술한 대로 문체는 격식적이고 어조는 정중하며, ‘국민’에 대해서는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여 호칭하고 있다.

담화문의 구조는 인사말-상황 설명과 해법 제시-(국민들에 대한) 당부-맺음말로 구성되어 있다.<sup>10)</sup> 인사말에서는 청자, 즉 국민을 위로하는 인사말을 하고 있고, 다음 단락에서는 현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sup>11)</sup> 상황 설명과 해법 제시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고 있-’이 빈도 높게 사용되고 있다.<sup>12)</sup> 다음은 국민들에 대한 당부로 ‘종교행사’의 자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맺음말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코로나 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하며<sup>13)</sup> 국민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정부 대국민 담화문의 전형적 구성으로, 필요에 따라 각 구성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다.

10) 담화문의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성미경(2003)이 있다. 성미경(2003)은 담화문의 구성을 상황 규정-방향성 제시-요구된 실천사항 등 셋으로 나누었다.

11) 담화문의 구조는 인사말과 본문, 맺음말로 나누면 셋으로 분석이 가능하고, 본문을 상황 설명, 해법 제시, 당부(또는 요청, 지침)로 세분화하면 최대 다섯 개의 단락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이 담화문은 상황 설명과 해법 제시를 함께 기술하고 있어 4개의 구성으로 나뉜다.

12) 한마루 2.0에 의한 어휘빈도 통계에서 명사는 <코로나><국민><여러분><정부><우리> 순으로 빈도가 높았고, 동사는 <있다><내다><이기다><주다><드리다> 순이었다. 동사 ‘있다’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거나(확진자가 증가하고, 노력을 다하고, 실시하고, 대처하고, 갖춰나가고) 가능 표현 ‘-을 수 있다’(이겨낼 수 있-, 극복해낼 수 있-, 치유할 수 있-)에 사용되었다.

13) 동사 ‘이겨내다’가 같은 문단에 3번 사용되었다.

### 3. 종교 담화문의 분석 결과

#### 3.1. 연구 대상

담화문은 종교담화의 전형적 텍스트 장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담화문’을 검색하면 그 수가 많지 않다.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에서 ‘담화문’이란 검색어로 검색된 파일은 모두 64건으로 가장 수가 많은데, 코로나19에 대한 담화문<sup>14)</sup>은 1건이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홈페이지에서도 44건<sup>15)</sup>의 담화문이 검색되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것은 2건이었고,<sup>16)</sup> 원불교 홈페이지에서는 3건의 담화문이 검색되었으며 그중 2건이 코로나19에 대한 것이었다. 천주교는 서울대교구 외에 한국 천주교 주교단 이름으로 2020년 3월 19일 담화문을 발표해 총 3건의 담화문을 수집하였다.

개신교의 담화문은 한국기독교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회 공동 이름으로 발표된 두 편과, 한국교회총연합회의 공동 대표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표 김태영 목사의 것을 수집하였다.<sup>17)</sup> 김태영 목사의 목회서신은 ‘담화문’이라고 명칭하고 있지 않지만 대한예수교장로회 대표로서 공식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코로나19의 확산에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된 개신교의 예배 문제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주는 자료이기에 대상으로 삼았다. 한편 3월 6일에 발표한 공동 담화문 ‘코로나19 사태와 신천지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은 코로나19보다 신천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해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4) 메뉴는 ‘종단>종단소식>주요소식’이다.

15) 해마다 발표되는 장애인의 날 담화문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생명위원회 담화문이다. 안내 정보에서 2건, 소식 알림에서 42건이 검색되었다.

16) 천주교는 대교구마다 홈페이지가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담화문은 서울대교구 홈페이지에서만 검색되었다.

17) 공동담화문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총연합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메뉴에서 검색되었고, 목회서신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표 1〉 종교 지도자들의 담화문

종교	발표 날짜	글쓴이	제목	약어
천주교	2020년 2월 25일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서울대 교구 사제들과 신자분들에게 드리는 담화문	천주_1
천주교	2020년 3월 15일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와 모임 중단 기간을 연장하며	천주_2
천주교	2020년 3월 19일	한국 천주교 주교단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한국 천주교회 신자분들께 드리는 담화	천주_3
원불교	원기 105년(20 20) 2월 27일	원불교 교정원장 오도철	원불교 교정원장 담화문	원불
불교	불기 2564년(2 020) 3월 6일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담화문	불교
개신교	2020년 3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회장, 총무·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공동)	코로나19 사태와 신천지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개신_1
개신교	2020년 3월 18일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회장, 총무·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공동)	코로나19 사태 공동 담화문	개신_2
개신교	2020년 3월 24일	대한예수교장로 회 총회장 김태영 목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총회장 목회서신	개신_3

2020년 2, 3월 당시 여러 담화문이 나오게 된 코로나19 상황을 요약하면,

2020년 2월 18일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대구 지역과 경북 청도 지역의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며, 2월 22일 '주의' 단계였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다.<sup>18)</sup> 그리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코로나19 대응 국민께 드리는 담화문'(2장에서 인용)을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한다. 이후 각 종교 지도자들은 미사 중지, 법회 중지 등의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하기 시작하는데 종교 지도자들 중 제일 먼저 2월 25일 서울대교구의 염수정 추기경이 담화문을 발표한다.<sup>19)</sup> 그리고 뒤이어 2월 27일 원불교는 교정원장의 이름으로 담화문을 발표한다.

천주교, 원불교와는 달리 대한불교 조계종과 개신교는 3월 6일이 되어 담화문을 발표한다. 불교는 조계종 외에도 태고종, 천태종 등이 있는데 이중 가장 신자 수가 많은 종파는 조계종이며 홈페이지에 담화문을 게재한 것은 세 종파 중 조계종이 유일하다. 개신교는 불교보다 더 종파가 다양하며 연합 모임<sup>20)</sup>도 하나가 아니라 4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신교는 당시 문제가 되었던 신천지로 인해 개신교의 종교시설이 코로나19 전파 요인이라는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3월 6일 신천지 사태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게 된다.<sup>21)</sup>

18) 당시 현황 파악은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의 정보를 기초로 한다.(<http://ncov.mohw.go.kr/> 참고) 2020년 2월 22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구 지역 155명, 경북 지역 132명으로 확인되며 2월 21일에는 코로나19 대응의 총리주재회의가 처음 열리게 된다.

19) 같은 날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성명서(2월 25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담화문은 특정 종교의 담화문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521자의 이 성명서는 코로나19 현황과 긍정적 전망, 국민과 정부에 대한 신뢰와 종교계의 다짐, 기도과 기원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휘 사용에서 '기도' 외에는 종교적 색채를 찾기 어렵다. 주요 대상은 정부 관계자와 의료진, 국민이다.

20) 개신교는 종파도 다양하고 연합회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교회총연합(UCCK), 한국교회연합(CCIK),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 등 수가 많아 이중 가장 오래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1924. 9. 24. 설립)의 담화문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한교협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21) 3월 6일 전후로 정부 부처에서는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한겨레 2020.3.5.'신천

### 3.2. 천주교 담화문

서울대 교구장의 담화문 2건과 주교단의 담화문은 제목에 담화문의 대상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 (1) ㄱ. 서울대교구 사제들과 신자분들에게 드리는 담화문(천주\_1)
- ㄴ.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와 모임 중단 기간을 연장하며(천주\_2)
- ㄷ.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한국 천주교회 신자분들에게 드리는 담화(천주\_3)

이와 함께 담화문에는 천주교 담화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형제 사제, 교형 자매’와 같은 친족 호칭을 사용하고, 수식어로는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인 ‘사랑하는’이 사용되었다.<sup>22)</sup>

- (2) ㄱ. 사랑하는 형제 사제들과 교형 자매 여러분(천주\_1)
- ㄴ. 사랑하는 교구 신자들과 형제 사제 여러분(천주\_2)
- ㄷ.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한국 천주교회 신자 여러분(천주\_3)

글의 구조적 측면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담화문의 내용과 관련한 성경 구절을 담화문 앞이나 뒤에 배치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개신교에서도 사용되는 언어적 특징으로 종교담화를 정부담화와 구별짓게 하는 요소이다.<sup>23)</sup>

지 강제수사' 추미애의 무리수? 중대본 "판단은 수사당국 몫" 반박), 구상권 검토(한겨레 2020.3.6. 정부 "신천지 '명백한 고의' 밝혀지면 구상권 청구도 검토"), 시설 폐쇄(한겨레 2020.3.6. 서울시 "신천지 허위제출한 시설정보 30여 곳 추가 발견 폐쇄") 등 강한 대응 조치를 하였다.

- 22) 강현석(2013)은 개신교, 불교 기도문에 나타난, 기도 대상에 대한 호·칭어를 분석하였다. 호칭어의 경우 개신교는 '아버지', 불교는 '부처님'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 23) 강민정(2019)에 따르면 개신교 목사들은 설교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몇 구절 읽고 시작한다고 한다.(둘을 같이하기도 한다)

천주교 담화문은 넷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단락에 해당하는 인사말과 마지막 단락의 맺음말에서 해당 종교의 특징이 드러난다.<sup>24)</sup> 그런데 천주교 담화문의 인사말에는 정부담화와 달리 (3ㄱ)에서 보듯 ‘방역당국자, 의료진’ 등 비신자에 대한 인사에 그 가족에 대한 인사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아버지, 형제, 자매’와 같은 가족 호칭을 종교에 사용하는 천주교 담화에 ‘가족’을 중시하는 종교적 가치가 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 (3) ㄱ. 방역 당국자들과 일선 의료진의 형언할 수 없는 수고와 그 가족들의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중략) 또한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 의 삶을 되찾길 기원합니다.(천주\_1)
- ㄴ.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 희생자와 그의 가족, 우리 국민, 나아가, 전 세계 모든 이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후략)(천주\_3)
- ㄷ.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우리 국민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 그리고 ~ 아드님의 특별한 은총을 청하며(천주\_1)

(3ㄴ), (3ㄷ)은 ‘가족’ 중심의 가치 외에 포교라는 종교적 과제가 신자로부터 이웃, 국민, 전 세계로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담화문의 본문 구성은 상황 설명과 해법 제시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당부로 짜여지는데 천주\_1의 담화문에서는 신부와 신자 외에도 정치지도자에 대한 당부<sup>25)</sup>가 포함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24) 첫인사에는 ‘주님의 평화와 은총을 빕니다’를, 끝인사에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청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 성모님의 전구를 겸손되이 구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한다.

25) 사제들과 신자에 대한 당부에 이어 ‘~ 혹시라도 ‘코로나 19’의 불행한 상황을 정략적이거나 정치적인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시도는 결코 없어야겠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천주교 미사 예식 중 신자들의 기도에는 국가와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천주교라는 특정 종교담화의 특

당부의 말은 '-기 바랍니다, -하시다, -어야겠습니다' 등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다른 종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4) ㄱ. 교형자매 여러분, ~ 주님 부활의 기쁨을 더욱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천주\_1)
- ㄴ. 미사 재계에 필요한 준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천주\_2)
- ㄷ.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 내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청하며 ~ 간청합니다.(천주\_3)

천주\_1과 천주\_2는 서울대교구의 담화문으로 주 대상은 교구 신부와 신자들이다. 반면 천주\_3은 신자뿐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식 담화문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본고가 분석하고자 하는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신자에 대한 메시지,<sup>26)</sup> 정부 등에 대한 태도 등에서 다른 면모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표 2〉 재난인문학적 관점에서의 담화 분석 내용\_천주교

분석 내용	천주_1	천주_2	천주_3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낮선 공포와 불안</li> <li>▶불안과 공포감</li> <li>▶위기, 어려운 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막 한가운테를 걷는 순례자의 심정</li> <li>▶힘겹고 낯선 체험</li> <li>▶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li> <li>▶어려운 시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기치 못한</li> <li>▶심리적, 사회적 피해, 경제적 피해</li> <li>▶위기</li> <li>▶광야 한가운테를 걷는 순례자의 심정</li> <li>▶재난과 시련의 시기</li> </ul>
코로나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도, 배려, 사랑</li> <li>▶안전, 생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시간의 의미와 가르침을 깨닫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대와 사랑의 실천</li> <li>▶적극적인 협조와 노력</li> </ul>

징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메시지 전달자의 개인적 특징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26) 종교담화문에는 신자(신도)뿐 아니라 사제, 사찰 스님, 목사 등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 종교마다 지칭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게 사용한다.

에 대한 대응	▶의연하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기도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성찰과 성숙의 때 ▶기도
사제와 신자들에 대한 메시지	▶기도, 단식, 자선, 묵상, 회개, 연민, 자비, 사랑, 희생	▶기도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시간 ▶믿음, 희망	▶믿음, 희망 ▶기도 ▶서로 힘이 되자(협조)
정부 등에 대한 태도	▶방역 당국자, 의료진과 그 가족에 감사 ▶국가와 정치지도자를 위해 기도 ▶정치 지도자 국민의 생존과 안정 최우선의 가치	▶낮선 공포와 불안 ▶불안과 공포감 ▶위기, 어려운 시기	▶의료진, 자원봉사자, 정부에 감사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

세 담화문 모두 코로나19에 대해 ‘위기, 어려운 시기’라고 표현하고 ‘낮선, 예기치 못한’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였다. 한편으로 천주\_2와 천주\_3은 순례자 비유를 사용하여 이 담화가 천주교 담화인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천주교의 대응은 크게 셋으로 나뉘볼 수 있다. 기도와 성찰, 협조이다. 세 담화문 모두 코로나 극복의 방법으로 기도와 성찰, 협조를 들고 있는데 이는 예전부터 내려온 천주교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 기도를 하고, 왜 이런 시련을 신이 주었는지 성찰을 하며, 그 가운데에서 이웃을 돕는 행위를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형적인 기독교적 대응 방식이다.

세 담화문 중 협조는 천주\_3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데,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 한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는 친정부적 발언을 하여 정치 지도자에 대한 우려를 표한 천주\_1과 구별된다. 사제와 신자들에 대한 메시지는 ‘기도, 사랑, 믿음’ 등 신앙생활에 필요한 덕목들이 핵심어로 추출되었으며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식과 연결되어 있다.

### 3.3. 원불교 담화문

원불교 담화문의 제목은 ‘원불교 교정원장 담화문’으로 담화문을 발표한 발신자를 담화문의 제목에 사용하고 있다.<sup>27)</sup> 제목 아래에 소괄호를 사용하여 ‘원불교 재기출가 교도<sup>28)</sup>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부제를 달아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혔다.<sup>29)</sup>

부르는 호칭은 따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교도, 교무’라는 지칭어와 인사말, 연도 사용(원기) 등에서 해당 담화문이 원불교 담화문임을 알 수 있다.<sup>30)</sup> 담화문의 구조는 인사말-상황 설명과 해법 제시(법회 중단)-관련자들에 대한 당부(교무, 교도들에 대한 지침)-맺음말로 구성되어 있다.

코로나19를 ‘재난’(재난 극복에 정성을 모아)으로 인식하고 앞서 살펴본 천주교 담화문과 마찬가지로 ‘불안, 두려움’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였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지침을 따르고 ‘원불교 코로나19 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취하고, 이러한 대응은 법회 중단과 훈련 행사의 연기 및 취소라는 강력한 대응책으로 연결된다.

교무와 교도들에게는 전화순교와 설교 및 강연 시청, 축원 기도를 부탁하고, 이웃을 도울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자들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는 천주교 담화문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웃을 돕는 행위를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27) 2022년 1월 28일에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담화문에도 같은 제목이 사용되었다.

28) ‘재기출가’ 교도란 세속을 떠나지 않고 집에서 스님처럼 도를 닦는 신자와 출가한 신자(스님)를 가리키는 것으로 모든 불자를 뜻한다.

29) 원불교의 담화문은 동영상 자료까지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고, 2월 28일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문도 파일로 올렸다. 또한 하단에 법회 중단을 보도하는 연합뉴스 기사도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담화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도문은 원불교뿐 아니라 천주교(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 불교 등 다른 종교에서도 작성되어 신자들에게 제공되었다.

30) 첫인사는 ‘원불교 재기출가 교도님들의 앞날에 범신불 사은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로 시작한다. 발표 연도는 원불교의 시작 연도(원기)를 사용하여 ‘원기 105년(2020)’과 같이 썼다.

종교적 메시지이다. 정부에 대한 태도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의료진이나 방역자들에 대한 감사 표현도 없다. 원불교 담화문은 부제와 같이 교도들에게 교단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 3.4. 대한불교조계종 담화문

2월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 전수조사 현황 및 조치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작된 종교행사 및 모임의 중단 조치는 조계종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2월 두 차례의 긴급지침을 공지한다. 첫 번째는 2월 20일로 종교행사의 자제를 요청하고 코로나 예방 지침을 공지하였으며, 2월 23일에는 법회 취소를 공식화하였다. 이는 앞서 분석한 천주교나 원불교보다 빠른 조치로 2차 긴급지침의 문구<sup>31)</sup>대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불교가 국가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담화문의 제목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담화문’으로 총무원장 명의로 발표되었지만 원불교처럼 발신자를 제목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지극한 마음으로 발원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제를 제목 아래 첨부하였는데, 이 문장은 본문 마지막 단락에도 사용하여 코로나19라는 위기 극복이 발원으로 가능하다는 종교적 태도를 가장 잘 보여준다. 대상(청자)은 국민과 사부대중<sup>32)</sup>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부대중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sup>33)</sup>

31) ‘코로나19 관련 대한불교조계종 전국 사찰 긴급지침(2차)’(2. 23.)은 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마지막(4번) 문장은 다음과 같다.

4. 우리 불교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항상 앞장서 국민들과 함께 고난을 극복해온 역사를 상기하고, 종단의 지침에 적극 협조한다.

32) ‘사부대중’은 불문(佛門)에 있는 네 가지 제자, 곧 비구(比丘), 비구니(比丘尼), 우바새(優婆塞), 우바니(優婆尼)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신도 전체를 가리킨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2009) 참고.

33) ‘국민’ 앞에 오는 수식어는 대체로 ‘존경하는’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천주교 주교 담화문에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가 사용되었다.

담화문은 인사말 없이 바로 코로나19에 대한 상황 설명으로 시작하고, 다음 단락에서는 조계종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긴급지침 시달, 정부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력, 모금운동, 공익템플스테이 준비, 기도 등) 이는 앞서 분석한 천주교 담화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호국 불교로서 불교의 역할을 강조한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신도들에 대한 당부인데 자신을 돌아보는 정진의 시간을 가질 것을 당부함과 함께 범회 중단으로 어려워진 재적사찰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하는 대목이 들어 있다. 종교의식이 중단됨으로써 생겨난 경제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이 앞선 담화문과 다른 점이다.

담화문에서는 코로나19를 ‘위기, 재난, 국가적 비상사태’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계종 차원의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협조(모두의 마음을 모아내다,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를 극복해, 화합, 성숙한 시민의식)와 믿음(재해대책본부와 의료진)으로 이 상황이 종식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과 신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정부나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 또는 부정적 태도는 찾아볼 수 없으며 국민과 신도들에게 정부와 의료진을 믿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국가 종교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불교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담화문이다.

### 3.5. 개신교 담화문

‘한교총, 한교협’ 공동 담화문과 김태영 목사의 목회서신<sup>34)</sup>에는 공통적으로

34) 네이버지식백과의 『교회용어사전』(2013)에 따르면 ‘목회서신’은 사도 바울이 기술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디모데후서를 가리키는 말이다. 형식은 서신이지만 그 내용은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는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권면과 목회적 지침을 전한 것으로, 지금은 목사가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목회서신이라고 지칭한다. 본고가 대상으로 한 목회서신은 기독교보에 게재되었으며(공식성), ‘총회 산하 9,200 교회와 기관 255만 명의 목회자와 성도’를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정부당국자, 언론인에 대한 당부를 포함하여 제목에는 담화문이라는 용어

‘코로나19 사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sup>35)</sup> 표준국어대사전의 ‘사태’는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이나 상황. 또는 벌어진 일의 상태.’라고 풀이되어 있지만, ‘사스 사태, 메르스 사태, 폭력 사태, 해고 사태’와 같은 쓰임에서 발신자가 코로나19의 확산을 하나의 큰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글은 다음과 같은 인사말로 시작한다.

- (5) ㄱ. 교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개신\_2)
- 나. 총회 산하 9,200 교회와 기관 255만 명의 목회자와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개신\_3)

두 담화문에는 다음 예에서 보듯 ‘교회’를 주어로 사용하거나 ‘우리,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사용한 주어의 쓰임이 빈번하다.

- (6) ㄱ.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성찰하며 실천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 믿습니다. (개신\_2)
- 나. 모든 교회는 보다 책임있게 행동해 주셔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신\_2)
- 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주중 집회를 중단하고, 주일예배의 중단 대신 예배 형식의 변경을 통해 ~ 대처해 왔습니다. (개신\_2)
- 르. 지금 한국 교회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국민과 함께 이 위중한 시련을 이겨내야 합니다. (개신\_2)
- 마. 한국 교회는 그동안 정부당국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 적극 협력해 왔습니다. (개신\_3)
- 바.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방역당국이 제시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개신\_3)
- 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난국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

---

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담화문으로 규정할 수 있다.

35) 코로나19 사태라는 표현은 3월 6일 발표된 조계종 담화문의 제목에도 사용되고, 같은 날 발표된 개신교 담화문에도 사용되고 있다.

습니다.(개신\_3)

‘교회’를 주어로 사용한 것은 담화문 발표자들이 교회 연합회의 대표이거나 총회장이기 때문일 것이고, ‘우리’의 빈번한 사용은 개신교 공동체가 하나임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호칭은 공동 담화문은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을 1회 사용하였고, 목회서신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의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국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을 각 1회씩 사용하였다. 호칭을 보면 담화문의 대상자가 성도<sup>36)</sup>와 목사임을 알 수 있는데, 목회서신에는 정부 당국자에 대한 경고와 언론인에 대한 당부가 포함되어 대상자의 범위가 더 넓다. 공동 담화문 끝에는 천주교 담화문과 마찬가지로 성경 구절<sup>37)</sup>이 배치되어 있으며, 목회서신에는 성경 구절은 없지만 요리문답<sup>38)</sup>이 인용되어 종교담화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3>은 재난인문학적 관점에서 두 담화문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표 3> 재난인문학적 관점에서의 담화 분석 내용\_개신교

분석 내용	개신_2	개신_3
코로나19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환경적 박해 상황</li> <li>▶위중한 시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와 환란의 시대</li> <li>▶재난</li> </ul>

36) 국어사전의 ‘성도(聖徒)’는 1) 기독교 신자를 높여 부르는 말, 2) 거룩하게 신앙 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나 순교자들 가운데 덕행이 뛰어나 공경받을 만하다고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람을 이르는 말로 풀이되어 있다.(고려대한 국어대사전, 2009) 같은 단어가 개신교와 천주교에서 달리 사용되고 있다.

37) 시편 91장 1, 2절로 하나님이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내용이다.

38) 요리문답은 교리문답이라고도 하며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체계 있게 교육 시킬 목적으로 만든 문답 형식의 글.”을 뜻한다.(네이버지식백과의 『교회용어사전』(2013) 참고)

<p>코로나19에 대한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적으로 감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야</li> <li>▶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국민과 함께 이겨 내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li> <li>▶적극 협력</li> <li>▶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기도</li> </ul>
<p>교회와 신자들에 대한 메시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회: 집단감염 재발 방지 협조, 안전예배 수칙 준수,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교회</li> <li>▶교인: SNS를 통해 친밀하게 교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기도, 주의 사랑 실천</li> <li>▶목사: 기도, 성도 섬기기</li> <li>▶장로: 믿음, 생명의 파수꾼 역할</li> </ul>
<p>정부 및 언론 등에 대한 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명령 대신 대화와 협력 부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 경고, 소통과 대화 당부</li> <li>▶언론: 공정한 보도 당부</li> </ul>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환경적 박해 상황’과 ‘위중한 시련’이라는,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을 표현한 단어들은 기독교의 관념이 반영된 것이다. ‘탐욕, 박해, 시련’ 등의 어휘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기독교 용어로,<sup>39)</sup> 신천지 사태로 인해 교회 전체가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된 당시를 화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두 담화문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인식과는 다른 차이를 보인다. 공동 담화문은 교회가 코로나 진원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교회 공동체에 집단감염 재발 방지 협조, 안전예배 수칙 준수 등에 동참하도록 설명하고 설득하는 글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이미 실행한 대응이 아니라 실행해야 하는 대응이 표현되어 있다. 반면 목회서신은 기독교인들에게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정부와 언론인들에게 설득하고 교회에 대한 조치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해 소통과 협력, 그리고 기도로 모범적으로 대응하였음을 강조하

39) 세 단어는 모두 『교회용어사전』(2013)에 풀이되어 있으며 이 사전에서 해당 단어가 사용된 성경구절도 확인할 수 있다.

고 있다.

청자에 대한 메시지도 두 담화문은 차이가 있는데 공동 담화문이 대부분 교회에 대한 메시지라면, 목회서신은 교회공동체의 구성원인 목사, 성도, 장로에 이르기까지 처지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두 담화문은 차이점 외에 공통점이 있는데 다른 종교 담화문에서 사용된 '미사 중지, 법회 중단'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대신 '예배의 형식을 바꾸다(개신\_2), 주일예배의 중단 대신 예배 형식의 변경(개신\_3)'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개신교의 종교예식인 예배가 지속되어야 함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목회서신에서는 요리문답 1번을 인용하며 예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 (7) ㄱ. 기독교인에게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개신\_3)  
 ㄴ. 기독교인에게 예배를 무시하고 포기하라는 것은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끊는 것입니다.(개신\_3)  
 ㄷ. 예배는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중단될 수도 없습니다.(개신\_3)

이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이해시키려는 목적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으나 개신교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즉, 코로나19의 전파지라는 오명을 더욱더 강화시켰을 것이다.

정부에 대한 태도에서도 두 담화문은 차이를 보인다. 공동 담화문에서는 정부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부탁하는 비교적 온건한 태도를 보인 데 반해 목회서신에서는 3월 21일 국무총리의 긴급담화<sup>40)</sup>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정부 조치와 언론 보도에 대해 '교회사찰, 한국교회 폄하, 모욕, 모멸감, 지존감에 손상, 육보이

40) 신천지 외에도 지역 교회에서 여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종교시설 등 다중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3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에서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 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력하게 항의한다. 항의의 수위는 상당히 높아 '기독교 신앙을 탄압, 군사 독재 시절에도 경찰 공권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왜곡과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공정한 보도를 하시라'와 같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

## 4. 결론

본고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종교계가 코로나19에 대해 어떤 인식과 대응을 보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20년 2~3월에 발표된 종교 지도자의 담화문 7편을 대상으로 언어적 특징과 재난인문학적 관점에서 담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담화문은 공히 코로나19를 재난과 위기로 인식하고 규정하였다. 개신교 담화문에는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환경적 박해 상황, 위중한 시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탐욕, 박해, 시련' 등의 어휘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이다.

둘째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정부 정책이나 방침에 협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으며, 종교적 대응 방식, 즉 이웃을 돕고 기도(발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절대신에 대한 기도와 발원, 이웃을 돕는 사랑과 자비는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재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신자들과 직무자(사제, 교무, 스님, 목사 등)에 대한 메시지에서는 신앙생활에 대한 당부가 주된 내용을 차지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자 하였다.

넷째, 정부에 대한 태도는 대부분 긍정적이며, 개신교의 목회서신만은 예외적으로 종교시설 폐쇄 등 강한 조치에 대응하여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

각 종교 담화문은 인사말, 호칭, 연도 표시 등에서 해당 종교의 어휘를 사용하여

어느 종교의 담화문인지 쉽게 알 수 있게 하였다. 모든 담화문의 맺음말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를 청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결국 재난 앞에서 약한 존재인 인간이 절대적 존재에게 기도(기원, 축원, 발원)하는 것이 종교담화의 가장 큰 내용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재난인문학, 종교담화, 담화문, 코로나19, 호칭, 인사말

### <참고문헌>

- 가스펠서브(2013), 『교회용어사전(Glossary of Christianity)』, 생명의말씀사.(네이버 지식백과사전 검색)
- 강민정(2019),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나는 사회언어학적 의미 연구-페어클로의 비판적 담화분석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44』,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33면.
- 강민정(2020), 「온라인 뉴스기사 제목의 비판적 담화분석: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코로나19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28-3』, 한국사회언어학회, 1-31면.
- 강세현·남인용(2021),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과 신문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4-1』, 한국정치정보학회, 1-37면.
- 강현석(2012), 「기독교와 불교 기도문의 사회언어학적 비교 연구-문형, 화행과 청자경어법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20-2』, 한국사회언어학회, 1-31면.
- 강현석(2013), 「개신교와 불교 기도문에 나타나는 호칭어와 지칭어의 비교 연구」, 『사회언어학 21-3』, 한국사회언어학회, 25-53면.
- 강희숙(2020), 「동아시아 재난에 대한 인문학적 담론의 모색」, 『인문학연구 59』,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9-24면.
- 강희숙·신유리(2021), 「K-방역에 대한 언론 사실의 담화 전략 분석 - 담론 형성의 언론사별 대조를 중심으로 -」, 『우리말연구 68』, 우리말학회, 187-217면.
- 김병홍(2014), 「대통령 사과 담화문의 언어 전략 분석」, 『우리말연구 38』, 우리말학회, 123-151면.
- 김재희(2018),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사회언어학적 의미 연구-페어클로의 비판적 담화분석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44』,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33면.
- 박서희(2021), 「코로나19 관련 정치 담화에 대한 비판적 담화 분석 : 트럼프와 쿠오모의 연설 비교를 통하여」, 『사회언어학 29-3』, 한국사회언어학회, 139-165면.

- 성미경(2003),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의 수사학적 특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 신문적·왕림·김진혜(2020), 「한·중 코로나19 관련 신문기사의 비판적 담화 분석 -의료진 및 확진자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57』, 한말연구학회, 97-129면.
- 안희연(2021),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의 대국민 담화문에 대한 비평적 담화분석 -포스트코로나 연설문을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31-2』, 한국이슬람학회, 177-206면.
- 양명희·김현강(2021), 「'위드 코로나' 담화 분석 -중앙지와 경제지 사설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91』, 우리말글학회, 97-124면.
- 이원표(2000), 「대통령 취임사 분석: 수사 구조와 담화의 민주화」, 『사회언어학 8-1』, 한국사회언어학회, 87-166면, 이원표(2001) 재록.
- 이원표(2001), 『담화분석: 방법론과 화용 및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실례』, 한국문화사.
- 이원표(2007), 「정치담화에서의 관여(involverment) 전략」, 『담화와인지 14-2』, 담화인지언어학회, 137-170면.
- 이원표(2015), 『한국 정치담화의 언어학적 분석』, 한국문화사.
- 이재원(2013),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의 수사학적 분석」, 『텍스트언어학 35』,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29-254면.
- 이해미(2020), 「한일 지도자의 연설문 분석 -코로나 위기 속 신뢰 구축과 협력 촉구를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87』, 한국일본어문학회, 121-142면.
- 임성우(2013), 「정치담화에서의 감정 표출과 양태성」, 『독일어문학 62』, 299-319면.
- 장진화, 김영화, 김유연, 엄한솔, 황인섭, 박광숙, 박영준, 이상원, 권동혁(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주요 집단발생 1년간 특징(2020.1.20.부터 2021.1.19.까지)』, 질병관리본부.
- 정경은(2019), 「한국 개신교와 불교 홈페이지의 인사말 비교 연구」, 『언어과학연구 89』, 언어과학연구회, 309-333면.
- 최태훈(2020), 「코로나19로 촉발된 미·중 미디어 전쟁 양상-환구시보 사설 비교를 통한 비판적 담화분석-」, 『비교문화연구 59』,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61-291면.

- Kohnen, Thomas(2010), Religious discourse, Andreas H. Jucker and Irma Taavitsainen (eds)., *Historical Pragmatics*, Handbooks of Pragmatics Volume 8, De Gruyter Mouton.
- Maingueneau, Dominique(2021), Religious Discourse and Its Modules, Jay Johnston and Kocku von Stuckrad (eds). *Discourse Research and Religion -Disciplinary Use and Interdisciplinary Dialogues*, De Gruyter.
- Parks, Russell M., Karen Tracy(2015), Discourses of Religion,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John Wiley & Sons, Inc.
- Pihlaja, Stephen (ed.)(2021), *Analysing Religious Discour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nen, Deborah, Heidi E. Hamilton, Deborah Schiffrin (eds).(2015), Discourse and Religion, *Th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e-book code 2nd), Wiley Blackwell.
- Wuthnow, Robert J.(2011), Taking Talk Seriously: Religious Discourse as Social Practic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vol 50-1.

[Abstract]

## A Study on the Statement of Religious Leaders in the COVID-19 Crisis

Yang, Myung-hee

This paper analyzes the contents of seven statements of religious leaders published in the COVID-19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disaster humanities. The summary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ll statements recognized and defined COVID-19 as a disaster and crisis.

Second, as a response to COVID-19 they prioritized cooperation with government policies and emphasized religious response methods, namely helping and praying for their neighbors.

Third, in the message to believers and officials(priests, monks, pastors, and etc.), the request for religious life occupies the main content, and tried to give the belief that COVID-19 can be overcome.

Fourth, the attitudes toward the government are mostly positive, and only Protestant pastoral letters show a negative attitude towards strong preventive measures such as the closure of religious facilities.

Each religious statement uses the vocabulary of the religion in greetings, titles, and year marks. The closing remarks of all the statements end with asking for prayers to overcome COVID-19. In the end, it can be said that the biggest content characteristic of religious discourse is that humans, who are weak beings, pray to the absolute being in the face of disaster.

【Key words】 : disaster humanities, religious discourse, statement, COVID-19, greetings, titles

---

---

## 양명희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06974)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자우편: yangmh@cau.ac.kr

---

---

이 논문은 2022년 10월 28일에 투고되었으며, 2022년 11월 26일에 심사 완료되어 11월 27일에 게재 확정되었음.